

문화체육관광부 보도 자료 수 하구파느딕



					'\ LILIIE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1. (5. 25.(금)	담당부서	문호	l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서기-	관 도현덕(044-203-2718)
담당과장	최성희(04	4-203-2711)	담 당 자	서기-	관 최승진(044-203-2712)
				사무	관 전준산(044-203-2724)

문체부 장관, 현장 건의사항 반영한 예술정책 직접 설명 - 6. 25. 창작준비금 관련 예술인 간담회 개최, 기존 간담회 참석자도 초청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6월 25일(금),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간담회를 열어 예술인 대표 지원사업인 창작준비금 사업에 대한 현장 반응과 요청을 살피고, 기존 현장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창작준비금 사업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클래식·대중 음악 예술인, 뮤지컬 배우, 안무가 등 현장예술인 4명과 황희 장관이 취임한 이후 열었던 '청년예술인 간담회', '장애예술 공연단 간담회' 참석자 4명 등 예술인 총 8명이 참석했다.

'15년도부터 시작된 창작준비금 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기준 중위 소득 120% 이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창작자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젊은 창작자들의 예술계 안착을 돕기 위해 예술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는 신진예술인도 창작준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참석자들은 예술인들에게 창작준비금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생생한 목소리로 전하고 예술활동증명 제도 등 관련 제도는 물론, 예술인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문체부는 이번 의견을 창작준비금 사업과 예술활동증명 제도 등 정책을 개선하는 데 반영할 계획이다.

기존 간담회 참석자 다시 초청, 건의사항 후속 결과 설명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현장 간담회 참석자들을 다시 초청해 황 장관이 당시 건의사항을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직접 설명했다.

▲ 지난 3월에 열린 '청년예술인 간담회'에 참석했던 예술기업 또모의 백승준 대표와 황예은 이사, 임지연 미디어예술 작가, ▲ '장애예술 공연단 간담회'에 참석했던 정정유 핸드스피크 대표가 이번 후속 간담회에 함께했다.

지난 간담회 참석자들은 ▲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 예술기업에 대한 지원 및 기술 융합 지원 확대, ▲ 장애예술인 전용 공간 확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황 장관은 ▲ 예술활동증명 제도와 관련해 자료 인정 범위 확대, 증명방법 다양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 예술인을 위한 종합 지원 근거지인 '아트컬처랩(Art-Culture Lab)' 조성, ▲ 장애예술인 특화 공연장과 연습실 조성 계획 등을 함께 소개했다.

현장이 중심이 되는 정책 추진 약속

황 장관은 "지난 2월 문체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 정말 많은 예술현장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예술인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있다."라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의 현장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구현되는지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현장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붙임 간담회 참석자 명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창작준비금 사업 관련) 서기관 도현덕(☎ 044-203-2718), (청년예술인 관련) 서기관 최승진(☎ 044-203-2712), (장애예술인 관련) 사무관 전준산(☎ 044-203-272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참석자 명단

구분	성명	소속/분야	
창작준비금 사업 신청자	박선영	클래식(오보에) 연주자	
	전유동	인디음악 가수	
	김병영	뮤지컬 배우	
	안혜민	예술감독 및 안무가	
	백승준	예술기업 또모 대표	
청년예술인 간담회 참석자	황예은	예술기업 또모 이사	
	임지연	미디어예술 작가	
장애예술 공연단 간담회 참석자	정정윤	핸드스피크 대표	